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신식** · 공정식***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 Ⅳ. 결 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장과정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그리고 배우자간 갈등수준요인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어떠한 차이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성별, 직업유무별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대부분이지만, 배우자살인에 있어서 40대에서 11.1%가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타인살인과는 달리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하였던 배우자살인범의 경우에는 100%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서 불량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살인범일수록 결혼 후 정서적인 이유, 즉 충동성이나 격정성, 우발성 등에 의하여 더 쉽게 배우자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성장과정시 학교생활 행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없었다. 한편 배우자간 갈등수준은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배우자간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낮은 갈등속에서도 도구적 동기에 의한 배우자 살인의 비율이 13.3%나 된다는 것은 배우자간의 살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주제어 : 배우자살인, 가족살인, 살인동기, 도구적 동기, 표출적 동기】

---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 수원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사회학박사과정수료(공동저자)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범죄심리학박사(제1저자)

Ⅰ. 서 론

통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보다 살인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인범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살인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 초래되는 피해는 영원히 원상회복될 수 없으며, 더불어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피해도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배우자살인이다. 가족살인의 영역은 존속살인, 배우자살인, 비속살인, 형제살인 그리고 넓게는 기타 친인척 살인까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그중 가족살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우자살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Thio(1983)는 대부분의 다른 범죄와 달리 살인은 낯선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적고 오히려 많은 경우가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간에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물질적 취득이 중요한 동기인 강도살인과 성적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근친 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윤호, 2002). 그 이유는 가족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까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의 주요 근원인 동시에 때로는 좌절과 상처의 주요 근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격한 감정을 요하는 살인에 있어서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낯선 이방인을 살해하는 경우보다는 감정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내가 사준 신발을 신고 바람을 피우느냐"며 따지자 격분하여 목졸라 살해하였다. 그리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동반자살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의처증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 지속적인 학대로 인하여 남편을 살해한 사건 등 배우자 간에 살인사건의 동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문화일보, 2006.3.20). 특히 남편살해 여성의 83%가 "상습 학대 경험이 있다"고 보도(서울신문, 2004.1.15)된 바 있다.

FBI자료에 의하면, 민주적 가족제도가 가장 잘 확립된 미국에서도 매년, 적어도 1,500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일 4명의 여성이 남성파트너에게 살해당하고 전체 여성살해사건 중 30%이상(일부는 50% 이상으로 추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ry, Dawn Bradley,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기록조사에서도 전체 살인사건의 24.9%가 가족에 의한 살인이었으며, 그 중 배우자 살인이 16.5%로 밝혀질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랑해서 결혼했을 부부가 서로를 죽이는 배우자살인은 얼마나 잔인한, 혹은 '엽기적'인 범죄인가? 결과만을 보자면 배우자살인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형태라는 것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 반하는 현실, 그렇다면 배우자살해를 저지를 정도의 원한 맺힌 사연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의 원한이나 동기가 없어도 치명적인 살인이 발생할 수 있을까? 왜 배우자살해가 일어나는가? 이 논문은 이런 점들과 관련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기록조사(판결문, 수형자분류심사표 등)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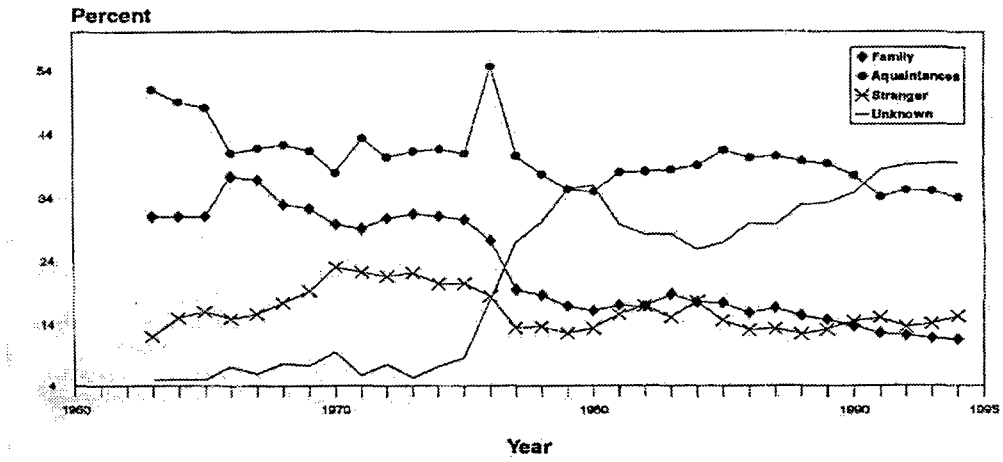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따뜻함, 사랑, 안전, 휴식, 그리고 보호 등의 기능을 갖게 되지만, 구체적 생활에서는 대결과 갈등적 이익이 충돌되는 제로섬의 영역이기도 하다. 살인사건에 있어서 갈등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살해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Block, 1977; 박형민, 2003),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만큼 갈등이 일어나기도 쉽고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Goode, 1969 : 941). 가정의 이중성은 사랑과 지배, 희생과 폭력, 평화와 간섭이 바로 가정에 공존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은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가해의 양상이나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배우자 관계와 같이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Wolfgang, 1958 : 455; Browne, Williams, & Dutton, 1999 : 161).

한편 최근 가족살인의 설명으로 진화심리학적 입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살해는 지금까지 가족살해의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연구라서, 가족살해에서 연구되어진 선행논문의 대부분이 배우자 간의 살해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배우자 폭행 및 살해의 위험변수로 제안되어 경험적 증거를 확보한 것들에는 아내의 연령(Shackelford etal., 2000 등), 의붓자식의 존재, 별거 및 이혼, 관계의 법적 지

위(Wilson etal., 1995),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친족의 밀도(Figueredo etal., 2001), 부부간의 연령차(Daly & Wilson, 1988) 등이 있다. 배우자살해 중 부인살해와 남편살해는 다르게 설명되어진다. 부인살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남성의 성적 독점욕이나 소유욕에 대한 논의가 많다. 즉 살해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부인살해는 자신의 유전적 자손(genetic posterity)을 남기기 위한 부인의 성적 정절(sexual fidelity)과 이에 따른 부성(paternality)이 불확실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통제욕구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부인에 대한 성적 질투심(sexual jealousy)이나 소유욕, 지배욕, 또는 이러한 욕구의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유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황희선, 2004; Daly & Wilson, 1988).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살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살자-가해자의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살인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가해지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며, 오히려 많은 경우 안면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신체적 상해가 적은 범죄일수록 낯선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확률이 높은 반면, 신체적 상해가 큰 범죄일수록 낯선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질 확률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1>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관계의 4가지 유형



* 출처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 Uniform Crime Reports (Annual).

<그림 1>은 1963년부터 1995년까지 UCR자료를 분석하고 4가지의 일반적인 범죄(가족, 지인, 낯선 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안에서의 살인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지인에 의한 살인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가족살인의 비율은 1976년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20년간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관계

피해자	가해자	
	여성	남성
배우자	28.3%	6.8%
내연	1.5%	0.5%
자녀/의붓자녀	10.4%	2.2%
인척	6.7%	6.9%
이성친구	14.0%	3.9%
지인	31.9%	54.6%
낯선 타인	7.2%	25.1%

※ 출처 : Greenfeld (1999), Women offend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4.

<표 1>은 1976-1997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배우자의 경우 아내들이 남편에 의하여 더 자주 살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자녀(의붓자녀포함)의 경우에도 여성인 자녀들이 남성인 자녀들보다 더 많이 살해되었다. 이성친구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더 많이 살해되었다. 반면에 안면있는 타인과 낯선 타인의 경우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장기간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또는 그런 위험이 현저하여 임박하였을 때가 많다(이수정 · 서진환, 2005; Browne, 1987). 특히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남자들은 가족 안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살해행동이 일어나기도 한다(Holmes & Holmes, 2001 : 107). Wilson 등(1995)은 여자가 헤어지거나 떠나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 관계를 해소하려는 행동을 할 때 남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 집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살인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데(Wolfgang, 1958; Goode, 1969; Messner& Tardiff, 1985; Silverman & Kennedy, 1987; Daly & Wilson, 1988; Maxfield, 1989), 특히 배우자관계와 다른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를 비롯한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사건의 동기와 양상은 차이가 있다(Ewing, 1997; Browne, Williams & Dutton,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로 인구사회학적으로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중점을 둔다. 가족살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경제적 조건-직업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배우자간 갈등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1. 살인의 동기

살인을 동기라는 측면에서 분류한 시카고 살인 프로젝트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1965년과 1989년 사이에 18,000건 이상의 살인사건들을 검토한 것을 기초로 해서, 특히 Block 등(1992)은 살인에 대한 감춰진 동기를 기반으로 하여 살인의 유형을 만들어 냈다. 이 유형에서 살인들은 그 숨겨진 동기가 표출적(expressive)인 것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도구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동기분류는 상황코드들에 기초한 분류들과도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록검토가 이루어지고 살인범의 내부동기에 맞춰진 분류라는 점에서 상황에 초점을 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범죄의 동기를 도구적 동기와 표출적 동기로 구분하는 것은 그동안 범죄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도구적 동기들은 미래에 명백한 목적들(돈을 얻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과 같은)을 이루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표출적 동기들은 종종 화, 분노, 욕구불만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행동들이다(Block & Christakos, 1995; Block, 1976; Decker, 1993, 1996; Siegel, 1998). 도구적이냐 표출적이냐 하는 구별은 간혹 사전 계획적인 범죄들과 무의식적인 격노범죄들 사이의 차이들과 유사하다. 범죄통제의 관점에서는 억제정책이 도구적 동기를 갖는 범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Chambliss, 1967; Thomas & Williams, 1977; Parker & Smith, 1979). 반면에 표출적인 범죄들은 법적인 처벌들로는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범죄예방 개입전략들도 도구적/표출적 동기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동기상의 구분을 살인연구에 적용하면 특정한 상황들과 자극들은 도구적 동기나 표출적 동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 논쟁, 말다툼, 치정관계, 사춘기집단의 살해

(예를 들면 일진회 등), 다른 대인간의 논쟁은 전형적으로 표출적인 행동들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주된 자극은 폭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Block and Christakos, 1995; Decker, 1996; Polk, 1994). 반면에 또 다른 중죄(강도·강간 등)를 저지르면서 발생하는 살인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도구적 살인들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살인범들이 다른 중죄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서 피해자의 죽음이 잠재적으로 예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강도살인범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Maxfield, 1989), 강도를 유발하는 행동들은 도구적인 목표들에 의해 명확하게 동기를 부여받으며, 사춘기집단에 의한 살인은 충동적이고 상황적이며, 기회주의적이고 무의식적인, 실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복수 또는 보복" 살인들의 경우에는 도구적-표출적 이분법에 근거해서 동기를 명백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Polk, 1994).

대부분의 범죄학 연구가 도구적 행동들과 표출적 행동들을 구별되는 개체들로 여기는 반면에, Block과 Block(1993)은 두 가지 동기유형들 모두 동일한 범죄의 유형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노상 갱폭력은 도구적인, 기업가적인 활동들의 결과일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폭력적인 갱 상황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표출적인 폭발을 포함한다.

살인사건의 동기와 주요변수의 특징을 보고한 자료를 보면, 살인범의 특징은 남자, 아프리카계미국인, 20-39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피살자의 특징도 살인범의 특징과 비슷하였으며, 살인의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살자들과 살인범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살인이었고, 살인의 50%이상에서 총기가 사용되었으며, 도시환경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부분의 도구적인 살인들과 표출적인 살인들 모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명백한 차이는 낯선 살인범들은 도구적 동기들에서 훨씬 일반적인 반면에, 가족 구성원들 또는 친밀한 집단(남자친구 같은)인 살인자들은 표출적인 동기들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도 남성들에 의하여 아내가 살해되는 사례들이 더 많지만, 일반 살인에 비하여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하는 비율이 높은데, 많은 경우에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가 살인으로 자행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Saunder, 1986; Dobash, Daly, 1992). 따라서 배우자살인은 타인살인과 달리 대부분 표출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살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

1) 성

살인의 동기에 있어서는 성별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Svalastoga(1956)는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를 비교하여 살인의 성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격정이나 싸움, 말다툼에 의한 기회적인 살인이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낯선 이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간의 불화나 원한, 분노에 의해 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해자의 경우 남편, 자녀, 애인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범위의 불평등에 있어서의 공격과 가해의 양식은 계급에서 관찰된 것과 상반된다. 낮은 계급과 빈곤집단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서 범죄적인 살인에 크게 관련됨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미국에서 여성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였음에도 살인피해자의 23%를 구성하였다. 아는 사람의 가해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 여성들은 가해자들 중 단지 9%만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화 과정은 살인의 성적 양식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으로서 확인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가해 중심에서 피해 중심으로 초점을 바꾸고, 통제에 관한 갈등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논쟁의 한 관점에 따르면, 높은 여성 희생률은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극단적인 행태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다른 관점에 따르면 지속적인 통제를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지배체제에 있어서 무능이나 결함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여성살인 희생을 성별 계층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실례가 Bailey와 Peterson(1995 : 177)의 연구(Bailey & Peterson, 1995; Gartner, Baker, & Pampel, 1990)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두 가지 일반적인 가설을 조사하였다. 한 가지 가설은 여성 살인의 희생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지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여성들이 고등교육과 높은 수입을 받을 때 치명적인 폭행에 대한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또 다른 가설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주의를 돌린다. 일반적인 여성주의 태도로서 Bailey와 Peterson은 더 큰 성적 불평들은 하위그룹인 여성이 피해를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본질적으로, 남성이 더욱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을 때 그들이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가 더 쉬워진다(손지선 · 공정

식 · 이수정, 2006). 성별은 폭력과 살인에 관련되는 사회적 계층화의 주요한 특징이다. Jacobson 등(1994)은 갈등상황에서 분쟁이 폭력적으로 상승하는데 있어 성별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연령

최근의 한 연구는 집단 크기와 젊은 연령 그룹에 대한 살인 및 다른 범죄들의 검거율 사이에는 작지만 부정적인 관계가,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다(Steffensmeier, Streifel, & Shihadeh, 1992). Smith와 Feiler(1995 : 331)는 1960년대 후반 동안에 베이비붐 집단의 살인 검거율의 관찰된 증가를 1980년대 후반의 소규모 10대 집단에서 나타난 훨씬 가파른 증가와 대조 시킨다. 그들은 "베이비붐 세대에 한꺼번에 집중된 관심에 의하면 베이비붐 시대의 젊은층들은 적어도 그들의 살인 검거 연루에 있어서 최근의 젊은 집단과 비교하여 오히려 유순하다."고 밝힌다. Pampel과 Gartner(1995 : 243)의 18개 공업국가에 대한 최근 조사는 살인율에 대한 연령 구조의 영향이 "집합적 사회 보호 기관"의 존재에 따라 우발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특정 연령 살인율에 대한 상대적 집단의 크기의 영향을 시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상대적 집단 크기의 정황적 영향에 관계된 Easterlin의 주장을 명백하게 언급한다. 그들은 국가들의 살인율에 대한 연령 구조의 영향이 희석되어서 소속감과 계층기반의 결속을 증진시킴으로 젊은 근로자들의 노동 시장 혼란을 완화시키고, 연령 분할을 감소시킴을 발견하였다. 살인에 대한 연령 구조의 영향은 그러한 보호적, "집단주의자"정책과 사회구조가 결여된 국가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3) 경제적 조건-직업

가정폭력은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교육수준, 개인적 차원에서의 좌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실직, 빈곤, 기회구조의 불평등 등과 같은 집합적 반응과 같은 것까지도 공격성의 배경이 된다고 한다. 가족내에서는 구성원, 특히 가장이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심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하류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가정 폭력이 발생한다는 경험적 자료들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준다(Goode, 1998).

Williams와 Flewelling(1988)이 설명하듯이, 사람들이 극도의 궁핍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생존을 위한 투쟁은 격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환경들은 종종 무력감, 분노, 근심, 소외감에 따른 심리적 동요의 행동을 동반한다. 그러한 행동들은 갈등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빈곤과 살인의 밀접한 관련성은 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과 미국 내의 다른 전통적인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실직자들과 빈곤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3).

최근에는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Brenner(1976)는 1940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국내범죄와 실업에 대한 통계를 연구하여,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살인은 5.7% 증가한다고 주장하였고(Brenner, 1976)), Hsieh 등(1993)은 가난, 경제적 불평등과 살인과 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198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표된 34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가난과 경제적 불평등 모두가 높은 폭력범죄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Ching-Chi Hsieh, Pugh, 1993), Land 등(1990)은 경제적 박탈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다면 실업은 살인과 일관된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는 다양한 범죄요소(가난, 실업, 높은 이혼율과 결손가정, 높은 인구밀도. 황폐한 주거환경, 변변치 못한 교육기관 기타 사회적 서비스, 잦은 이사와 인구이동,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의 집중 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배제한 연구(기초적 회귀모델로 통합하고 집락분석을 통해 분석)를 통해 자원 박탈/풍요라는 집락에 흑인들의 비율, 결손가정 아동의 비율, 가난, 소득불균형의 척도들이 포함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 요소들이 개념적으로는 독립된 것이지만, 통계기술상 각각의 요소가 살인에 미친 영향을 분리시켜 알아내지는 못했다(Land, McCall, Cohen, 1990). 살인범들의 경제적 조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는 직업의 종류와 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보다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1975년 전미 가정폭력 조사에 의하면, 실업상태 혹은 시간제 고용상태에 있는 남성이 완전 고용에 있는 남성보다 폭력이 심하였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사무직 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폭력율을 보였다(Straus, 1990). Steinmetz(1987)도 실업 상태가 남편들에게 그들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므로 아내구타와 관련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Peterson(1980)도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

람이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아내구타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의 분석틀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배우자살인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가 성별, 연령, 직업유무, 성장과정, 배우자간 갈등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동기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동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젊은 층의 부부집단과 고령 층의 부부집단간에도 살인동기에는 차이가 있고,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직업유무에 있어서도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한편 성장과정에서 불량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에 따라 배우자살인의 동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배우자간에 갈등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도 살인의 동기는 다를 수 있다. 여기서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이 불량하다는 기준은 학자들마다 천차만별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유재승, 2000; 이정구, 1986; 김재걸, 1975),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 등의 객관적 통계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몇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배우자 살인범의 특성별로 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1-1. 성별로 타인살인에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1-2. 연령대별로 타인살인에 비교하여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1-3. 직업유무별로 타인살인에 비교하여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가설 2. 배우자살인범의 성장과정별로 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2-1. 가정환경의 상태별로 타인살인에 비교하여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2-2. 학교생활의 상태별로 타인살인에 비교하여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가설 3. 배우자간 갈등수준별로 타인살인에 비교하여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

1. 연구의 방법

이 글의 목적은 살인범죄 가운데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살인에 관한 것이다. 살인범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가장 친밀한 집단인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영역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기록조사를 통하여 배우자살인의 구조적 특성을 타인살인과 비교·구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배우자살인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원인에 대한 제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설문지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해 보았다. 배우자살인은 그러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공식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간의 또는 동거사이간의 살인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결혼을 통한 배우자 간의 살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표집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표본의 수가 적거나 한정된 조사대상자를 연구할 때는 설문조사보다는 심층면접법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살인범이고 표본이 전국 교정시설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심층면접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간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설문조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들에 관련된 각종 기록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러한 기록조사 중 수형자분류심사표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분류심사 전문가들에 의한 면접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구체적으로 표본집단은 법무부 교정국 보라미시스템을 통해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된 살인범(총 3986명, 2006년 6월말기준) 중 약 7%에 해당하는 살인범들을 무작위로 총 300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자료 중 배우자살인범은 108명(40.4%)였고, 타인살인범은 159명(59.6%)이었다. 이렇게 표집된 대상자들에게 2006년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각 기관의 분류심사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277개(92%)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267개(97%)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지방청별 설문지 수거현황은 <표 2>와 같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특성과 각 설문문항간의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표 2> 지방청별 설문지 배포현황 및 수거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지방교정청	대구 지방교정청	광주 지방교정청	대전 지방교정청
응답자 수	300 (267)	100 (88)	50 (37)	50 (46)	100 (96)

* ( )는 수거현황임

2) 설문조사표의 구성

설문조사표에서 고려한 항목은 크게 A. 살인범의 범죄전력, B. 살인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C. 살인범의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배우자갈등요인 등으로 구체적인 설문조사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살인범의 범죄전력>에는 최초범죄연령, 전체전과횟수, 실형전과횟수, 살인시 연령 등을 파악하였다. B. <살인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종교, 최종학력, 부모결혼상태, 출생순서, 자녀유무, 자해경력, 심신장애여부, 여자형제유무, 혼인여부, 문신종류, 성기변형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C. <살인범의 성장과정요인 및 배우자갈등>에는 살인범들이 가정내에서 겪게 되는 갈등사항과 탄원서나 반성문 등에서 그리고 분류심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결과 가정환경요인, 학교생활요인, 배우자갈등요인의 변수를 개발할 수 있었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배우자 살인범의 의식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요인분석하여 총 5개의 요인을 추출했으나, 그중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2개의 요인을 제외하고 최종 3개의 요인을 새로운 변수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요인들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환경요인

<표 3>을 보면, 가정환경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777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가정환경요인의 내용을 보면, 배우자살인범의 성장과정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부모간의 갈등이 핵심적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요인의 통계치(평균=.532, 표준편차=.499)를 기준으로 정상가정과 불량가정으로 2원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가정환경 요인의 신뢰도

요 인	문항내용	Cronbach ALPHA
가정 환경 요인	18세이전까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부모가 자주 싸우는 등 갈등이 심했다고 생각한다.	.704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족회의를 하기 보다는 각자 해결하는 편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음주가 심해서 가족들이 자주 불안해 한 적이 있다.	
	현재 수감된 것처럼 내 처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족의 영향도 있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부모가 아닌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고 싶다.	

(2) 학교생활요인

<표 4>을 보면, 학교생활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704으로 만족스러운 신뢰수준이다. 이에는 학업실증도, 학내에서 폭력성, 조기성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요인의 통계치(평균=.482, 표준편차=.500)를 기준으로 정상생활과 불량생활로 2원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학교생활 요인의 신뢰도

요 인	문항내용	Cronbach ALPHA
학교생활요인	어려서 학교다닐 때 나는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	.704
	학교에서 나는 싸움을 잘하는 축에 든다고 애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18세 이전에 학교친구나 애인, 사창가 등에서 처음으로 성경험을 한 적이 있다.	

(3) 배우자갈등요인

<표 5>을 보면, 배우자갈등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932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간의 갈등수준이 높다는 것은 배우자 살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우자 살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갈등요인의 통계치(평균=2.163, 표준편차=.609)를 기준으로 정상생활과 불량생활로 2원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5> 배우자갈등 요인의 신뢰도

요 인	문항내용	Cronbach ALPHA
배우자갈등	배우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를 때는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자주 하였다.	.932
	배우자는 싸울 때 물건을 부수거나 나를 밀거나 움켜잡고 흔드는 행동을 한다.	
	배우자는 아이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주 나를 모욕하거나 창피를 줬다.	
	배우자와 싸울 때 마다 점점 더 폭행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가출 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배우자가 나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꼬치꼬치 케묻거나 깊이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	
	나의 배우자는 나 몰래 애인이 있거나 남녀간 성관계가 지저분했다.	
	배우자가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다.	
	부부싸움 때문에 내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신고한 적이 있다.	

종합적으로 새로운 측정요인들의 신뢰도를 보면, 배우자갈등요인의 Cronbach α가 .932였고, 다음으로 가정환경의 Cronbaha α는 .777, 학교생활의 Cronbaha α는 .704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 조사의 결과-배우자살인의 동기분석

1) 성

<표 6>는 성별로 살인범들의 살인동기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살인동기는 표출적 살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배우자살인에서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 < .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살인범의 성별로 타인살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본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성별은 타인살인과 배우자살인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 성별 살인동기 [단위 : 건(%)]

구 분		표출적 동기	도구적 동기	계
타인살인	남성	107(74.8)	36(25.2)	143(100.0)
	여성	14(87.5)	2(12.5)	16(100.0)
배우자살인	남성	42(95.5)	2(4.5)	44(100.0)
	여성	62(96.9)	2(3.1)	64(100.0)

* 타인살인 : x^2=1.271, 자유도=2, Prob.= .212, 배우자살인 : x^2=.148, 자유도=2, Prob.= .539

2) 연령

<표 7>는 연령대별로 살인범들의 살인동기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타인살인의 경우에는 20대에서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의 비율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는 40대에서 11.1%의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발생한 것이 유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 < .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살인범의 연령대별로 타인살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본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요약하면, 타인살인에 비하여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갈등에 의한 동기로 표출적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볼 때 위 통계결과는 그러한 추론을 지지한다. 그런데 배우자살인에 있어서 40대에서 도구적 동기로 배우자를 살인하는 비율이 10%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주의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다.

<표 7> 연령대별 살인동기 [단위 : 건(%)]

구 분		표출적 동기	도구적 동기	계
타인살인	10대	10(71.4)	4(28.6)	14(100.0)
	20대	53(68.8)	24(31.2)	77(100.0)
	30대	40(83.3)	8(16.7)	48(100.0)
	40대	14(87.5)	2(12.5)	16(100.0)
	50대이상	4(100.0)	-	4(100.0)
배우자 살인	10대	-	-	-
	20대	4(100.0)	-	4(100.0)
	30대	60(100.0)	-	60(100.0)
	40대	32(88.9)	4(11.1)	36(100.0)
	50대이상	8(96.9)	-	8(100.0)

* 타인살인 : x^2=.194, 자유도=4, Prob.= .186, 배우자살인 : x^2=.267, 자유도=3, Prob.= .040

3) 직업유무

<표 8>는 직업유무별로 살인범들의 살인동기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타인살인의 경우에는 무직일 때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31.6%로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는 5.3%만이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p < 0.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살인범의 직업유무별로 타인살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본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직업유무는 타인살인을 설명하는데는 유용한 요인이지만, 배우자살인을 설명하는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직업유무별 살인동기 [단위 : 건(%)]

구 분		표출적 동기	도구적 동기	계
타인살인	무직	48(68.6)	22(31.4)	70(100.0)
	유직	73(83.9)	14(16.1)	87(100.0)
배우자 살인	무직	36(94.7)	2(5.3)	38(100.0)
	유직	64(97.0)	2(3.0)	66(100.0)

* 타인살인 : x^2=5.163, 자유도=1, Prob.= .019, 배우자살인 : x^2=.325, 자유도=1, Prob.= .465

4) 가정환경

<표 9>는 살인범들의 성장시 가정환경별로 살인동기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타인살인의 경우에는 불량가정에서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27.5%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가정에서 성장한 살인범들이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비율이 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 < .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살인범의 가정환경별로 타인살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본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요약하면, 타인살인범에 비하여 배우자살인범이 어렸을 때 정상가정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타인살인의 경우에는 불량가정출신의 살인범은 도구적 동기의 살인비율이 27.5%로 높았던 반면에,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는 불량가정출신의 살인범은 100% 표출적 동기에 의하여 살인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표 9> 가정환경별 살인동기 [단위 : 건(%)]

구 분		표출적 동기	도구적 동기	계
타인살인	정상가정	63(79.7)	16(20.3)	79(100.0)
	불량가정	58(72.5)	22(27.5)	80(100.0)
배우자 살인	정상가정	44(91.7)	4(8.3)	48(100.0)
	불량가정	60(100.0)	-	60(100.0)

* 타인살인 : x^2=1.148, 자유도=1, Prob.= .188, 배우자살인 : x^2=5.192, 자유도=1, Prob.= .036

5) 학교생활

<표 10>는 살인범들의 성장시 학교생활별로 살인동기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타인살인의 경우에는 불량한 학교생활을 한 살인범들이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p < .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살인범의 학교생활별로 타인살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본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성장과정시 학교생활의 불량성은 타인살인을 설명하는 요소로써는 유용성이 있으나, 배우자살인을 설명하는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학교생활별 살인동기 [단위 : 건(%)]

구 분		표출적 동기	도구적 동기	계
타인살인	정상생활	59(48.7)	8(21.1)	67(42.1)
	불량생활	62(51.3)	30(78.9)	92(57.9)
배우자 살인	정상생활	66(64.7)	4(100.0)	70(66.0)
	불량생활	36(35.3)	-	36(34.0)

* 타인살인 : $x^2=9.106$, 자유도=1, Prob.= .002, 배우자살인 : $x^2=2.138$, 자유도=1, Prob.= .185

6) 배우자간 갈등수준

<표 11>는 살인범들의 배우자간 갈등수준별로 살인동기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타인살인의 경우에는 낮은 갈등관계에서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의 비율이 18.8%로 높았으며, 배우자살인의 경우에도 낮은 갈등관계에서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의 비율이 1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 < .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살인범의 배우자간 갈등수준별로 타인살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본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요약하면, 배우자간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낮은 갈등속에서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발생한 비율이 13.3%나 된다는 것은 배우자간의 살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표 11> 배우자간 갈등수준별 살인동기 [단위 : 건(%)]

구 분		표출적 동기	도구적 동기	계
타인살인	낮은 갈등	52(81.3)	12(18.8)	64(100.0)
	높은 갈등	24(85.7)	4(14.3)	28(100.0)
배우자 살인	낮은 갈등	26(86.7)	4(13.3)	30(100.0)
	높은 갈등	74(100.0)	-	74(100.0)

* 타인살인 : x^2=.270, 자유도=1, Prob.= .423, 배우자살인 : x^2=10.261, 자유도=1, Prob.= .006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온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장과정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그리고 배우자간 갈등수준요인 등을 중심으로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성별, 직업유무별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대부분이지만, 배우자살인에 있어서 40대에서 11.1%가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타인살인과는 달리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이 불량가정이었던 배우자살인범의 경우에는 100%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량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범죄인일수록 정서적인 이유, 즉 충동성이나 격정성, 우발성 등에 의하여 더 쉽게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성장과정시 학교생활 행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없었다. 한편 배우자간 갈등수준은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배우자간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낮은 갈등속에서도 도구적 동기에 의한 배우자 살인의 비율이 13.3%나 된다는 것은 배우자간의 살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것은 모든 배우자살인이 갈등수준에 관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10%이상이라는 것을 추론케 하는 것이다. 부부간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도구적 동기에 의하여 충분히 배우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부간에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으며, 특히 40대의 경우에는 부부간이지만 타인과 같은 정서를 느끼면서 사는 부부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배우자살인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이슈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살해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배우자살해를 설명하고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성격 등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배우자 살인을 포함하여 모든 살인에 있어서 연구방법상 사회심리학적 연구방법이 상당히 유용한 살인연구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배우자살인의 동기가 대부분 표출적 동기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밝혀지고 있으나, 동기라는 개념자체가 2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많은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 범행동기가 도구적이면서 표출적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은 2분법적 동기구분이 부적절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객관적으로 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 하위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배우자살해시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의 여부 등이다(공정식, 2006). 흉기를 사전에 소지했다면 계획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며, 계획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도구적 동기에 의하여 살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또는 저학력집단에서 배우자살해와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저학력이라 하더라도 모두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또 다른 매개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살인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매개변인을 발굴하는 연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도 여러 가지 조사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배우자살인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나, 표집과정 등이 비확률적 표집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화 가능성의 제한을 가지며, 또한 자료의 해석 및 코딩과정상의 표준화 등의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등과 같은 효과로 인하여 왜곡된 반응을 했을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추후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정식(2006). 「살인범들에 대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걸 (1975). 「소년범에 대한 비행요인분석 및 그 구명」.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형민 (2004).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손지선 · 공정식 · 이수정 (2006). "가족내 살해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발전연구회, 경찰학연구 제11호.

이수정 · 서진환 (2005). 「배우자살인으로 수감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면책사유와 관련될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윤호 (2002). 『범죄학 개론』. 박영사

이정구 (1986). 「청소년비행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승 (2000). 「출석불량학생과 정상학생의 가정환경, 자아정채감 및 학교생활 적응 비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상섭 (2001). "살인을 범한 정신분열병의 특성", 최상섭 外著, 2001, 대한법의학회지, 제25권 제2호 통권 제46호 (2001. 10)

황희선 (2004). 「18, 19, 20세기 한국의 살인에 관한 진화적 연구 : 살인사건에 나타난 성차의 양상과 배우자 살해사건의 적응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rry, Dawn Bradley.(2000).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ok, LA : Lowell House, 7.

Block, R.(1977). "Violent crime." Mass : Lexington Books.

Block, C. R., & Christakos, A.(1995). "Crime and Delinquency"

Browne, K. R. Williams, & D. G. Dutton(1999). "Homicide between intimate partners"

Chambliss, W.(1967). "The negative self: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heoretical Assumption.

Ching-Chi Hsieh, Pugh(1993).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A Meta-Analysis of Recent Aggregate Data Studies", Criminal Justice Review 18(2) : 182-202.

Daly & Wilson.(1988). Homicide, New York : Aldine de Gruyter.

Decker, S. H.(1993). "Exploring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in Homicide."

Ewing, C. P.(1997). "Fatal Families: the dynamic of intrafamilial homicide."

Gartner, K. Baker, & F. C. Pompel(1990). "Gender Stratification and the Gender Gap in Homicide Victimization"

Land, McCall, Cohen(1990). "Structural Covariates of Homicide Rates: Are There Any Invariances Across Time and Sp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922-963.

Maxfield, M. G.(1989). "Circumstances in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s: Variety and validity"

Messner, S. F. and K. Tardiff.(1985). "Economic Inequality and Levels of Homicide : An Analysis of Urban Neighborhoods."

Polk(1997). "A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ctim-precipitated Homicide"

Silverman, L. & Kennedy, R.(1987). "Relational distance and homicide: The role of the stranger"

Steffensmeier, D., C. Streifel and E. S. Shihadeh(1992). "Cohort Size and Crime Rates Over the Life Course: The Easterlin Hypothesis Reconsidered."

Siegel. D. A.(1998). "Resource competition in a discrete environment: Why are plankton distributions paradoxical?"

Thio(1983). Deviant Behavior(2nd ed.), Boston, MA:Houghton Mifflin Co., 101-108.

Wolfgang, M. E.(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Williams, K. R., & R. L. Flewelling.(1988). "The Social Production of Criminal Homicide: A Comparative Study of Disaggregated Rates in American Cities,"

The Analysis about Factors That Influence the Motive of Partner Homicide

Shin, Shik · Gong, Jung Sick

This study explained about the different motive of partner homicide and this homicide's elements which are feature of human sociology, home environment, school life and partner's trouble causes.

After analyzed these elements which affect to the motive of partner homicide, we couldn ′ t find statistical differences of partner homicide motive by sex, having a job.

However, there are small gap in an age group. Almost the homicide by expressive motive was a primary factor in the whole mass but, in the age of 40's, 11.1% is by the homicide of instrumental motive in the partner homicide.

We need some more detail analysis and the partner murderer who growed up in very poor home circumstances commit Homicide by 100% expressive motive.

This result suggested that murderer who was in the inferior home environment can do murder more easier than normal because of their emotional reason which are urgent, impulsive and contingent.

On the other hand, their school life behavior during a growth process was useless for explain the motive of partner homicide.

On one side, we could confirm that partner's trouble cause is a very useful element for explain the partner homicide, that is, if the if the level of conflict with partner's were high, the murder by expressive motive will grow up.

But we must see the fact that the partner homicide's rate is 13.3% by instrumental motive in the low trouble causes very carefully for understand the partner homicide.

【Key words : Partner Homicide, Family Homicide, The Motive of Homicide, Instrumental Motive, Expressive Motive】